

## 누구에게나 ‘있다’ 35 억년의 생명이

---



“이것도 없다, 저것도 없다.” 라며, ‘없는 것’ 을 찾기 시작하면 ‘있는 것’ 까지 보이지 않게 되는 법입니다.

지금은 물질이 풍요로워졌습니다. 그런데 욕망에는 끝이 없어, 없는 것을 찾고 또 원하는 바람에 물건만 넘치고 소중한 것이 보이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.

이제 없는 것 찾기를 그만두고, 있는 것들을 세봅시다.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. 만약, 나에게는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. 35 억년이나 살아오고, 지금 내가 말아서 살아 있다는 돌도 없는 ‘생명’ 이.

**즐거운 삶의 천리교**

## 누구에게나 ‘있다’ 35 억년의 생명이

---



“이것도 없다, 저것도 없다.” 라며, ‘없는 것’ 을 찾기 시작하면 ‘있는 것’ 까지 보이지 않게 되는 법입니다.

지금은 물질이 풍요로워졌습니다. 그런데 욕망에는 끝이 없어, 없는 것을 찾고 또 원하는 바람에 물건만 넘치고 소중한 것이 보이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.

이제 없는 것 찾기를 그만두고, 있는 것들을 세봅시다.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. 만약, 나에게는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. 35 억년이나 살아오고, 지금 내가 말아서 살아 있다는 돌도 없는 ‘생명’ 이.

**즐거운 삶의 천리교**

돌 위에 씨앗을 둔다. 바람이 불면  
날아가 버린다. 새가 와서 쪼아 먹  
어 버린다. 싹트지 않는다.

(계시록 · 지도말씀 = 1890.9.30)



우리는 돌 위에 씨앗을 뿌리  
는 것과 같은 일을 하고 있을지  
도 모릅니다. 비록 땅속에 심  
었다고 해도, 아직 싹이 안 틀  
까, 아직 멀었을까 싶다가 파내  
버릴 수도 있습니다.

이것은 너무 경솔한 행동이지만, 성진실이 있다면 어  
떨까요? 위의 말에 이어서 “진실한 마음으로 뿌린 씨  
앗은 묻혀 있다. 괭이로 파헤쳐도, 거기서 싹트지 않  
더라도 다른 데서 싹이 튼다.”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  
다. 신앙하는 세계의 위대함을 엿보는 것 같습니다.

돌 위에 씨앗을 둔다. 바람이 불면  
날아가 버린다. 새가 와서 쪼아 먹  
어 버린다. 싹트지 않는다.

(계시록 · 지도말씀 = 1890.9.30)



우리는 돌 위에 씨앗을 뿌리  
는 것과 같은 일을 하고 있을지  
도 모릅니다. 비록 땅속에 심  
었다고 해도, 아직 싹이 안 틀  
까, 아직 멀었을까 싶다가 파내  
버릴 수도 있습니다.

이것은 너무 경솔한 행동이지만, 성진실이 있다면 어  
떨까요? 위의 말에 이어서 “진실한 마음으로 뿌린 씨  
앗은 묻혀 있다. 괭이로 파헤쳐도, 거기서 싹트지 않  
더라도 다른 데서 싹이 튼다.”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  
다. 신앙하는 세계의 위대함을 엿보는 것 같습니다.